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2호. pp. 1333~1342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008. Vol. 32. pp. 1333~1342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 차이

박장근 (명지대학교) · **이순환** (Indiana Univ. Purdue Univ.) ·
이용호 (Univ. of Toledo) · ***임란희** (명지대학교)

Ⅰ. 서 론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여가문화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여가의 증대로 인간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으로써 여가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여가활동은 삶의 질적 향상, 자아실현, 행복추구, 건강증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최고 욕구인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여러 대상 중에서도 대학생들은 가장 활발하게 자발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으로서 건전하고 효과적인 여가활동 경험과 그를 위한 여가의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김호순, 원유미, 2005), 이은하, 박창범, 박대권(2005)은 과다한 여가시간 속에서 여가에 대한 주체적 사고 없이 유행심리 속에 방치되어 있는 대학생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여가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손희정(1998)은 대학생들의 소비적이고 오락의존적인 여가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대학 자체 내의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여가연구는 아직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노동시간의 단축, 소득증대, 인구의 노령화 고학력 등으로 여가기회가 확대됨으로 인한 여가의 중요성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여가연구가 하나의 학문형태로 발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노용구, 2006). 이렇게 부족한 한국의 여가연구에서 여가활동을 조사하고,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대안과 방법 중 하나로 여가학에서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사례조사나 분석 등의 질 높은 연구를 통하여 비교하고, 적용하여 실질적인 신뢰를 받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여가라는 학문이 앞서 있고 긴 전통을 가진 나라를 선택하여 그들의 장·단점을 참고하여 우리들의 여가발전에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보다나은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일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겠는데, 미국은 경제공황을 극복하면서 경제력 확대와 개인의식의 변화로 1960년대에 여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가연구가 하나의 개별학문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여가문제는 생활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여가를 하나의 사회현상과 제도로 변화시켰다. 미국에서 여가는 삶과 분리될 수

* lrh1533@naver.com

없는 문화로까지 정착되었고 개별학문으로서 여가학의 당위성은 확보되었으며(Burdge, 1985), 마침내 1969년 Journal of Leisure Research의 첫 간행은 미국 여가연구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었다(McLellan, 1980; Iso-Ahola, 1988).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여가연구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미국의 나라와 대학생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여가태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을 위한 여가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조그만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필요성을 두었다.

또한 여가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참여자들의 여가태도를 들 수 있겠다. 태도란 태도대상과 상황에 관련된 소지자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심적이고 생리적인 상태로서 경험을 통해 조직화된 것이다. 태도는 경험에 의해 획득된 심적 준비상태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Olson & Zanna, 1993).

인지적 요인은 태도대상에 대하여 소지자가 갖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중성적인 상념과 지식 등을 말하며, 정의적 요인은 태도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행동적 요소는 태도대상과 관련된 호의적 또는 혐오적으로 취하는 행동의 의도적 측면을 말하는데(김경태, 1996), Beard & Raghed(1982)에 따르면, 여가태도는 자신이 성장한 사회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여가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가태도는 개인에게 여가활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이끌어줄 수 있는 척도로 기대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가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다(김재운, 2001; 박영숙, 2005; 심상신, 2004; 이복희, 2003; 이상일, 유현순, 하수영, 2005; 이은하, 박창범, 박대권, 2005, 전형상, 윤상화, 김진표, 2001).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이 한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여가태도를 비교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여가에 있어 선진적으로 앞서있는 미국 대학생들과의 여가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가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분야이고 범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가연구는 이제 국제화와 선진학문에 대한 도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가연구가 활발한 미국의 대학생을 선택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여가태도를 조사·비교함으로써 여가활동을 예측하고, 관계원인을 찾아 여가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변화시켜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생활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가 간의 여가태도 차이와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고 문화권과 개인별 차이가 여가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하여, 여가교육의 기대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위한 여가연구의 나아갈 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한 M, H, Y대학교의 한국 학생들과, 미국 North Carolina주 N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450명이 참여했으나, 241명의 한국 대학생과 143명의 미국 대학생으로 총 384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n(%)

구 분		한국	미국
성 별	남 자	135(56.0)	74(51.7)
	여 자	106(44.0)	69(48.3)
학 년	1 학년	110(45.6)	-
	2 학년	68(28.2)	10(7.0)
	3 학년	5020.7)	59(41.3)
	4 학년	13(5.4)	74(51.7)
전 공	체육계열	184(76.3)	98(68.5)
	일반계열	57(23.7)	45(31.5)
용 돈	10만원(100$)이하	35(14.5)	80(55.9)
	20만원(200$)이하	44(18.3)	45(31.5)
	30만원(300$)이하	79(32.8)	14(9.8)
	40만원(400$)이하	83(34.4)	4(2.8)
합 계		241(100.0)	143(100.0)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내용은 성별, 학년, 전공, 용돈의 개인별 특성 4문항, 여가태도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설문지는 Beard & Raghed(1982)가 개발한 여가태도 측정 도구를 김태순(2002)의 논문에서 사용된 내용 중 15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태도의 응답형태는 리커드식 5단계 척도이며, 문항 채점은 "매우 부정"(1점)~ "매우 긍정"(5점)으로 하였다.

3.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계수를 산출한 결과, 여가태도에 관한 15문항의 전체 α 값은 .985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표 2>와 같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직각회전방법(orthogonal) 중 베리맥스(veri max)를 이용하였다. 요인의 아이겐 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으며, <표 2>, <표 3>과 같이 타당성 있게 나타났다.

표 2. 여가태도의 하위변인 신뢰도와 주성분 분석 성분행렬

구분	하위변인	신뢰도 (α)	성분	공통성 초기	공통성 추출
인지적 태도	여가는 건전한 시간이다	.971	.819	1.000	.670
	여가는 생활의 활력을 제공		.863	1.000	.744
	여가는 나의발전에 도움		.782	1.000	.612
	여가는 즐거움을 제공		.864	1.000	.746
	여가는 유쾌한 경험 제공		.840	1.000	.706
	여가를 많이 즐길 수 있는 곳에서 살길 희망		.720	1.000	.519
정의적 태도	여가는 행복을 증진시킴	.975	.836	1.000	.699
	여가는 매우 중요하다		.797	1.000	.635
	여가활동은 시간이 잘 간다		.774	1.000	.599
	여가는 나에게 좋은 것이다		.894	1.000	.800
	여가는 신선함을 느끼게 함		.839	1.000	.703
	나는 여가활동을 좋아함		.835	1.000	.698
행동적 태도	여가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864	.855	1.000	.731
	여가 용품이나 장비를 구입		.693	1.000	.480
	새로운 여가에 도전하고 싶다.		.860	1.000	.739

표 3. 여가태도의 하위변인 주성분 분석결과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전체	%분산	%누적	전체	%분산	%누적
인지1	3.996	66.608	66.608	3.996	66.608	66.608
2	.606	10.106	76.714			
3	.450	7.499	84.213			
4	.426	7.094	91.307			
5	.268	4.474	95.781			
6	.253	4.219	100.000			
정의1	4.134	68.892	68.892	4.134	68.892	68.892
2	.590	9.826	78.718			
3	.411	6.845	85.563			
4	.336	5.604	91.167			
5	.314	5.230	96.397			
6	.216	3.603	100.000			
행동1	1.950	65.002	65.002	1.950	65.002	65.002
2	.690	22.987	87.989			
3	.360	12.011	100.000			

4. 자료처리 방법

설문지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SPSS WIN Ver. 12.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신뢰도 검증,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의 여가태도의 차이를 위해 독립 t-test,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국가 간 여가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정(Duncan)이 사용되었다.

Ⅲ. 결 과

1. 한국과 미국의 여가태도 차이

<표 4>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여가태도에 대한 각 하위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국가 간의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 4>를 보면 한국 대학생들은 인지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미국 대학생들은 정의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국가 간의 여가태도에 대한 차이를 산출한 결과 행동요인에서 유의도 0.22(t=-4.621)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4. 한국과 미국의 여가태도 차이

	한 국 (241)		미 국 (143)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지	4.1051	.73157	4.3298	.67555	-2.993	.171
정의	4.1044	.72572	4.3648	.68203	-3.475	.227
행동	3.8147	.83928	4.2051	.73043	-4.621	.022*

*p<.05

2. 성별에 따른 여가태도 차이

<표 5>, <표 6>은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여가태도의 각 하위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국가 간의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 5>, <표 6>을 보면 한국 대학생 중 남학생은 정의요인이, 여학생은 인지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미국 대학생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의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여가태도의 국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국가 간 여가태도에 차이

변인	df	t	f	p
인지	382	.525	1.928	.166
정의	382	.726	.634	.426
행동	382	1.348	1.570	.211

표 6. 성별에 따른 여가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N	인 지		정 의		행 동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한국	남자	135	4.11	.82	4.12	.78	3.88	.86
	여자	106	4.10	.60	4.09	.65	3.73	.81
미국	남자	74	4.37	.63	4.39	.65	4.20	.73
	여자	69	4.28	.72	4.34	.72	4.21	.73
country합계		384	4.22	.70	4.23	.70	4.01	.78

3. 학년별에 따른 여가태도 차이

<표 7>, <표 8>은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학년별에 따른 여가태도의 각 하위변인들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7>, <표 8>을 보면 한국 대학생의 1학년은 정의 요인에서 2, 3, 4 학년은 인지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미국 대학생은 2, 3학년이 정의요인에서 4학년은 인지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학년별에 따른 국가 간 여가태도에 대한 차이를 산출한 결과 인지요인 유의도 .001(f=5.803), 정의요인 유의도 .001(f=5.739), 행동요인 유의도 .008(f=4.017)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7. 학년별에 따른 국가 간 여가태도 차이

변인	구 분	ss	df	ms	f	p	Duncan
인지	집단-간	8.664	3	2.888	5.803	.001**	3>4>2>1
	집단-내	189.120	380	.498			
	합 계	197.784	380				
정의	집단-간	8.605	3	2.868	5.739	.001**	3>4>2>1
	집단-내	189.932	380	.500			
	합 계	198.537	383				
행동	집단-간	7.946	3	2.649	4.017	.008**	4>3>1>2
	집단-내	250.553	380	.659			
	합 계	258.499	383				

**p<.01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표 8. 학년별에 따른 여가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N	인 지		정 의		행 동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한국	1학년	110	4.00	.84	4.05	.81	3.82	.92
	2학년	68	4.04	.63	3.99	.66	3.72	.74
	3학년	50	4.41	.56	4.39	.61	3.93	.85
	4학년	13	4.11	.52	4.08	.46	3.81	.57
미국	2학년	10	4.50	.46	4.77	.28	4.40	.60
	3학년	59	4.35	.55	4.43	.57	4.24	.58
	4학년	74	4.29	.78	4.25	.77	4.15	.84
country합계		384	4.19	.72	4.20	.72	3.96	.82

4. 전공별에 따른 여가태도 차이

<표 9>, <표 10>은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전공별에 따른 여가태도의 각 하위변인들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국가 간의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 9>, <표 10>을 보면 한국 대학생 중 체육계열은 정의요인이, 일반계열은 인지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미국 대학생은 체육계열은 정의요인이, 일반계열은 인지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전공별에 따른 국가 간 여가태도의 차이를 산출한 결과 인지요인에서 유의도 0.017(t=-2.385), 행동요인에서 유의도 .013(t=-3.091)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전공별에 따른 국가 간 여가태도 차이

변인	df	t	f	p
인지	382	-2.385	5.712	.017*
정의	382	-1.601	2.882	.090
행동	382	-3.091	6.265	.013*

*p<.05

표 10. 전공별에 따른 여가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N	인 지		정 의		행 동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한국	체육계열	184	4.07	.77	4.08	.75	3.77	.89
	일반계열	57	4.23	.58	4.19	.62	3.97	.64
미국	체육계열	98	4.27	.68	4.33	.69	4.10	.73
	일반계열	45	4.47	.65	4.44	.67	4.43	.68
country합계		384	4.26	.67	4.26	.68	4.26	.74

5. 용돈별에 따른 여가태도 차이

<표 11>, <표 12>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용돈별에 따른 여가태도의 각 하위변인들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1>, <표 12>를 보면 한국 대학생은 10만원 이하와 20만원 이하에서 인지요인이, 30만원 이하와 40만원 이하의 용돈에서 정의요인이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미국 대학생은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용돈이 정의요인에서, 400$ 이하 용돈이 인지요인에서 가

표 11. 용돈별에 따른 국가 간 여가태도 차이

변인	구 분	ss	df	ms	f	p	Duncan
인지	집단-간	4.396	3	1.465	2.879	.036*	2>1>4>3
	집단-내	193.388	380	.509			
	합 계	197.784	383				
정의	집단-간	4.095	3	1.365	2.668	.047*	2>1>4>3
	집단-내	194.442	380	.512			
	합 계	198.537	383				
행동	집단-간	14.576	3	4.859	7.569	.000***	2>1>4>3
	집단-내	243.923	380	.642			
	합 계	258.499	383				

*p<.05, ***p<.01
1:10만(100$), 2:10만(100$), 3:10만(100$), 4:10만(100$)

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용돈별에 따른 국가 간 여가태도 차이를 산출한 결과 인지요인에서 유의도 0.036(f=2.879), 정의요인에서 유의도 0.047(f=2.668), 행동요인에서 유의도 .000(f=7.569)으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용돈별에 따른 여가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N	인 지		정 의		행 동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한국	10만원이하	35	4.19	.77	4.18	.82	4.08	.69
	20만원이하	44	4.19	.64	4.14	.70	3.95	.84
	30만원이하	79	4.04	.85	4.06	.83	3.70	.88
	40만원이하	83	4.08	.65	4.10	.59	3.74	.85
미국	100$ 이하	80	4.23	.71	4.25	.72	4.07	.73
	200$ 이하	45	4.50	.46	4.58	.41	4.48	.56
	300$ 이하	14	4.18	.97	4.29	1.01	4.07	1.01
	400$ 이하	4	4.84	.19	4.63	.48	4.34	.47
country 합계		384	4.19	.72	4.20	.72	3.96	.82

Ⅳ. 논 의

교통의 신속함과 효율적인 수송방법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여가활동도 급속도로 변모하여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세계는 점점 다문화적인 환경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어 각기의 학문분야에서는 비교 문화를 통해 민족들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 규명하고 자국 문화의 전통성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있으며,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차이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 간의 차이는 경제수준, 가족제도, 학력 등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독자성 있는 비교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도로 국제화에 돌입하고 있는 여가연구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 간에도 여가태도의 차이가 나타남은 물론, 학년, 전공, 용돈에서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여가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행동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미국대학생들의 여가태도별 간의 평균점수를 보면, 인지, 정의, 행동의 모든 요인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특히 행동 요인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은 보통(3점) 정도의 점수가 나타났으나, 미국 대학생들은 4점(긍정) 이상의 점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경호(2004)의 주장대로 한국 대학생들은 대학입시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과도한 경쟁으로 청소년들을 내모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화가 개개인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과 성취를 강조하는 수직적 개인주의와 상호간의 의존성보다는 복종을 강조하는 수직적 집단주의의 복합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의 독특성을 개발하여 발전시킬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행동적 요인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는데, 행동적 요인은 태도대상과 관련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취하는 행동의 의도적 측면을 말한다(김경태, 1996).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투자와 참여의지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영재(2004)의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 따라, 남에게 이끌려 행동하기보다는 그들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결과를 지지할 수 있겠다.

또한, 이은하, 박창범, 박대권(2005)과 김동진(1998)은 여가활동 참여빈도가 여가태도와 상관관계가 높다

고 했으며, 여가참여 빈도가 증가할수록 행동적 여가태도에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Waaler Loland(1998)의 연구에서는 여가 스포츠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더 나은 신체적 이미지를 지각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높게 지니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외에도 기존의 수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도의 관계에서 스포츠 활동의 여가유형이 다른 여가활동 유형보다 여가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강봉화, 2002; 고영태, 2006; 박장근, 임란희, 2007; 이병찬, 박재성, 김경렬, 2005; 이정자, 김명준, 2004; 이제홍, 이광수, 엄진종, 2005; 최성애, 김경식, 2004; 최장호, 박영숙, 2003).

이와 같은 견해는 활동적, 능동적 여가참여는 여가만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오래전부터 보고한 외국의 연구들(Brooks, Elliot, 1971; Flanagan, 1978; Komkauser, 1983; Mancini & Other, 1980)에서도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다.

여가의 본질은 구속성을 배제한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여가를 노동, 학업, 사회적 의무로부터 해방시켜 휴식, 자발적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개념이라고 볼 때, 다양한 여가활동 유형 중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이 아닌 본질적으로 활동 자체에 목적을 두면서 여가의 속성을 잘 갖추고 있는 여가활동이라고 하겠다. 또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의 관점에서도 여가만족과 관련성이 높은 여가는 수동적 여가보다는 능동적 여가라고 하였다(Flanagan, 1978). 결국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여가활동이 여가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가활동 참여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행동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의 행동적 여가태도를 높이고, 참여빈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스포츠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겠다.

둘째,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태도는 학년, 전공, 용돈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의적 태도는 학년, 용돈에서, 행동적 태도는 학년, 전공, 용돈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Markus & Kitayama(1991)은 문화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 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개개인은 매우 다른 인지적, 정서적 경험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주관적 특성에 따라서도 관련성 정도에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조사한 성별, 학년, 전공, 용돈에 따라서 차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 전공, 용돈에 따른 인지, 정의, 행동적 태도에서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처한 특성에 따라 삶의 상황이 변화하고, 또 삶에서 요구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태도는 여가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여가추구와도 밀접한 영향을 준다. 여가태도의 개념화 과정을 보면, 개인에게 주어진 선행요소는 신념을 형성하고, 이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며, 태도는 개인에게 수요를 형성하는 결정을 자극하고 최종적으로 여가행동에 참여하는 것(김광득, 2005)이라고 했다. 이처럼 태도는 개인이 그의 주변 세계, 대상, 상징을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이며, 여가행동 전반에 작용하는 중요한 지침은 아니나, 여가참여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가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또 하나는 대상에 대한 속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노용구(2006)는 보다 효과적으로 여가태도를 변화시키려면 수동적인 참여보다는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거나, 혹은 강력하게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한 여가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은 젊음의 상징답게 적극적, 능동적 여가활동 유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심신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 완벽하게 시행되어질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한 홍수 시대에 선행학습의 경험으로 적극적인 여가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생에 있어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 자유로운 생각과 시간을 바람직하고 유용한 여가활동으로 보람 있게 보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흐름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여가행동을 조사할 때 성별, 용돈, 전공 등과 같은 변인이 여가선택의 실절적인 결정요인이 아니라 개인이 여가행위를 조작하고 결정함에 있어 외부적인 한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인적 특성은 여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위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 여가활동 유형 중 스포츠 활동과 같은 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대학생들의 긍정적 태도를 좌우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대학교육 내에 정규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넘치는 여가 시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향락 및 불안과 허무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가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가가 무엇인가를 이해-각 개인이 여가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언제 여가가 생기는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여가경험의 탐색-개인의 여러 가지 여가경험과 친숙하게 하여 그것을 학습하고 탐색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여가경험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의 확인-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넷째,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학습-여가행동 및 기술을 학습을 통해 개인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능동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학습-스포츠 활동과 같은 동적인 여가활동이 대학생들의 긍정적 정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가태도의 하위요인인 인지, 정의, 행동 요인에서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국가 간의 여가태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했으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여가태도에 대한 국가 간의 차이는 행동요인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적 태도는 학년, 전공, 용돈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정의적 태도는 학년, 용돈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행동적 태도는 학년, 전공, 용돈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2. 제 언

첫째,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 최근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늘어난 주말시간을 효과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가태도를 분석하여 여가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여가교

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도록 하는 연구도 가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여가태도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하는 점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선행된 여가의 측정도구는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우리 글로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여가관련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봉화(2002).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7.

고영태(2006). 대학생들의 여가유형별 여가참여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득(2005). 21세기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김경태(1996).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태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진(1998). 대학생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14(1)

김영재(2004). 미국대학생의 여가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2.

김재운(2001). 대학생의 교양체육 수강과 동아리활동 참여가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5(2).

김태순(2002). 특기·적성 교육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여가태도 및 여가태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호순, 원유미(2005). 대학생의 여가활동에 대한 의식조사. 청소년학연구, 12(4).

노용구(2006). 여가학. 서울 : 대경북스.

박영숙(2005). 여자 대학생의 여가활동, 여가태도 및 여가만족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5.

박장근, 임란희(2007) 전공별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유형 및 개인적 특성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태도 차이. 한국체육학회지, 46(4).

손희정(1998). 학교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여가태도, 여가만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상신(2004). 대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만족과 여가태도 및 학교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3(1).

이병찬, 박재성, 김경렬(2005).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별 만족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8.

이복희(2003). 여자대학생의 여가만족, 여가태도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5).

이상일, 유현순, 하수영(2005). 여자대학생의 여가태도 및 관여도와 라이프스타일의 인과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8.

이영길(1989). 미국 여가연구의 현황.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6(1).

이은하, 박창범, 박대권(2005).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태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6(6).

이정자, 김명준(2004).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3).

이제홍, 이광수, 엄진종(2005).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6(5).

전형상, 윤상화, 김진표(2001). 대학생들의 전공별 여가태도와 여가 만족간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1(1).

차경호(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최성애, 김경식(2004). 직장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최장호, 박영숙(2003).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에 대한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2(1).

Barnett, L. A., & Wade, M. G.(1988). In celebration of leisure research : A reflective look. In L. A. Barnett(eds.), *Research about Leisure Past, Present, and Future.* Champaign, IL : Sagamore Publishing.

Beard, J. G., & Rahgeb, M. G.(1982). Measuring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2).*

Brooks, J. B. & Elliot, D. M.(1971). Perdiction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t age thirty from leisure time activities and satisfaction in childhood. *Human Development, 14.*

Burdge, R.J.(1985). Leisure research and park and recreation education : Compatible 0r not? In T. Goodale and P. Witt(Eds.). *Recreation and Leisure; in an Era of Change.* 343-351. State College, PA : Venture Publishing.

Flanagan, J. C.(1978). A research approach to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Americans Psychology, 33.*

Komkauser, A.(1983). *Mental health of the industrial worker : A detroit stud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Olson, J., & Zanna, M.(1993).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1).*

Iso-Ahola, S. E.(1988). Research in therapeutic recreation.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22(1).*

Markus, H. & Kitayama, S.(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Mancini, J. A.,& Orthner, D.K.(1980). Sithational influence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morale in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8.*

McLellan, R.(1980). *Research. Parks and Recreation, July,* 62-90.

Waaler Loland, N.(1998). Body image and physical activity: A survey among Norwegian men and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9.*

ABSTRACT

The Deference of Leisure Activities Attitude according to between Korea and America Students' Characteristics

Park, Jang-Geun · Lee, Soon-Hwan · Lee, Yong-Ho · Lim, Ra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or the deference of leisure activities attitude compared with Korean and America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attitude in subcategory factors of leisure activities attitude include recognitive attitude, definitive attitude, behavioral attitude. 241 M,H,Y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143 North Carolina N university students are responded survey for this study from 2007, May to August.

The collected data based of survey a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alysis by SPSS WIN ver 12.0. The result is following : First,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 of leisure activities attitude in behavioral attitude between Korean students and America students.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 shows difference grade sector, own major, personal expenses in recognitive attitude. Third, the statistical difference shows grade sector, personal expenses in definitive attitude. Forth, the statistical difference shows grade sector, own major and personal expenses in of behavioral attitude.

Key Words : Korea and America students, leisure activities attitude

접 수 일 : 2008. 3. 3
게재확정일 : 2008. 5. 14